

금 7·10위 이내 목표 ... 대~한민국 선수단 도쿄 입성

도쿄올림픽 D-3

양궁·체조·탁구·펜싱·승마 등
선수단 본진 69명 일본 도착
24일 양궁·태권 등 금메달 사냥

23일 개막하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이상, 메달 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내건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19일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인화 선수단장이 이끄는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은 양궁 11명, 체조 10명, 탁구 9명, 펜싱 8명, 자전거 2명, 승마 1명에 본부 임원 28명을 더해 총 69명으로 구성됐다.

또 수영과 배드민턴 대표팀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 선수단 본진보다 약 1시간 정도 일찍 나리타 공항에 내렸다.

입국장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염려되기도 하지만 선수들 관리를 잘해서 무난하게 대회를 치르고 가도록 하겠다"며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해온 기량을 100% 발휘하도록 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흥 회장은 금메달 7개와 10위 이내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라며 "선수단 관리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29개 종목에 선수단 354명(선수 232명·임원 122명)을 파견해 금메달 7개 이상, 메달 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수단 남녀 주장은 진종오(사격)와 김연경(배구)이 맡았고, 23일 개회식에 태극기를 들고 입장할 기수로는 김연경과 황선우(수영)가 선정됐다.

우리 선수단은 14일 요트 대표팀이 일본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일본에 입성했다.

또 18일 사격, 테니스, 조정 등의 대표 선수단이 나리타 공항에 내렸고, 20일 배구, 21일 핸드볼과 유도 등 경기 일정에 따라 종목별 선수들이 속속 일본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국 선수단은 대회 개막 전날인 22일 남자 축구 뉴질랜드전으로 첫 일정을 시작하고, 개막 다음 날인 24일 진종오를 비롯해 양궁 혼성 단체전, 태권도, 펜싱 등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올림픽은 즐거워 체조 국가대표 여성정(가운데) 등 선수들이 19일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후

“아버지의 이름으로 ...”

스포츠 ‘레전드’ 2세대 남다른 각오

‘바람의 손자’ 야구 이정후
이종범의 한 풀러 도쿄로
체조 여흥철 딸 여성정
25년 만에 부녀 메달 관심
펜싱 윤지수·농구 박지수
아버지의 꿈 대신 도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중엔 올림픽에 도전했던 ‘레전드’의 피를 이어받은 선수들이 꽤나 많다.

‘2세 태극전사’ 들은 한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부모님을 따라 도쿄올림픽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겠다고 남다른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대표적인 2세 선수는 ‘바람의 손자’ 이정후(23·키움 히어로즈)다.

이종범 프로야구 LG 트윈스 코치의 아들인 이정후는 야구대표팀의 일원으로 도쿄 무대를 밟는다.

이종범 코치는 선수 시절 프로 무대와 각종 국제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정작 올림픽 본선 무대는 밟지 못했다.

건국대 재학 시절 출전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대표팀이 3위에 그치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 코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아시아 예선에도 뛰었는데, 아쉽게 탈락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정후는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도쿄로 향한다. /연합뉴스

펜싱 여자부 사브르 종목에 출전하는 윤지수(28·서울시청)도 야구 영웅의 자녀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에이스로 유명했던 윤학길 전 한화 이글스 코치가 아버지다. 윤지수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데, 이번 대회에서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을 노린다.

윤학길 전 코치도 선수 시절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야구가 시범종목으로 치러진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활약했다.

당시 야구대표팀은 아깝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준결승에서 미국에 2-5로 졌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만에 0-3으로 패했다.

한국 여자 기계체조의 간판 여성정(19)도 대표적인 ‘2세 체육인’이다.

여성정은 아버지인 한국 체조의 레전드 여흥철 경희대 교수에 이어 25년 만에 올림픽 부녀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도마 황제’ 여흥철 교수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도마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여 교수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는데, 착지 과정에서 살짝 흔들려 금메달을 목에 걸진 못했다.

여자 농구대표팀의 일원으로 도쿄 무대를 밟는 박지수(23·정주KB)는 실업 농구 삼성전자의 주전 센터로 활약했던 박상관 분당경영고 코치의 딸이다.

박지수는 여자농구대표팀이 13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하는 데 앞장섰다.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에서 뛰는 박지수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쿄올림픽에서 이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박상관 코치는 올림픽 무대를 밟지 못하고 은퇴했다. /연합뉴스

‘김학범호’ 22일 뉴질랜드전 첫 승 쏜다

남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

‘김학범호’가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공식 경기에 출격해 승리를 쟁조준한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22일 오후 5시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의 이바라키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이번 올림픽 29개 종목에 23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을 통틀어 첫 공식 경기다.

개회식 하루 전 열리는 첫 경기인 만큼 올림픽 남자 축구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는 김학범호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단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전이다.

첫 상대인 뉴질랜드는 객관적 지표로 보면 한국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만한 상대다.

국제축구연맹(FIFA) 122위, 역대 올림픽 남자 축구 순위는 70위(2회 진출·6전 2무 4패)로 강호라고는 볼 수 없다. FIFA 랭킹(39위)과 올림픽 성적(10회 진출·34전 10승 13무 11패·17위) 모두 한국이 우세하다.

상대 전적에서도 A매치 6승 1무, 올림픽 대표팀 3전 전승으로 한국이 압도한다.

이번 대회에 나설 뉴질랜드 대표팀은 엔트리의 절반이 넘는 13명이 ‘유럽파’다. 잉글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에서 뛰는 선수들이 모였다.

24세를 초과하는 와일드카드는 2명을 포함했는데, 프리미어리그(EPL) 번리의 공격수 크리스 우드, EPL 승격팀 브렌트퍼드의 수비수 윈스턴 리드가 공수 중심을 잡는다.

특히 EPL에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공격수 우드는 ‘경계 대상 1호’다.

일본으로 오기 전 아르헨티나, 프랑스와의 최종 모의고사에서 각각 2골씩을 내줬던 김학범호선 수비 안정이 첫 경기 승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표팀은 17일 일본에 도착해 18일부터 가시마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했다.

거취가 정리되지 않은 채 합류했던 김민재(베이징 귀안)가 출국 전날 결국 최종 엔트리에서 빠지고 박지수(김천 상무)로 대체되면서 변화를 겪은 중앙 수비진의 호흡이 첫 경기 전까지 어느 정도로 완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소고기 소비량 늘면 올림픽 메달도 는다”

한우협회, 한국 금메달 13개 전망

올림픽 메달과 육류 1인당 소비량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주간 한우정보 제9호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올림픽 메달 수와 육류 1인당 소비량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에 근거해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예상 금메달 수는 13개에 이른다

고 밝혔다. 한우정책연구소는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과 올림픽 메달 수를 비교했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육류 소비량 1kg 증가가 메달 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선수 100명당 메달 수를 종속 변수, 1인당 소비량을 독립 변수로 하는 분석을 시행한 결과 1인당 육류 소비량 1kg 증가에 따른 선수 100명당 금메달 수 증가는 쇠고기 0.35개, 돼지고기 0.17개, 닭고기 0.26개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이번 도쿄올림픽 성적을 전망하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를 비롯해 총 메달 30개 정도를 따낼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